단속인원 보충·지도선 확대 ‘시늉’만

■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시행 1년

에워싼 중국 선박에 되레 쫓겨나기도

‘한·중 조업쿼터 협상시 연동’도 하세월

#.지난 15일 오전 가거도 남서방 14마일(22㎞) 인근 EEZ 내측 해역. 한국 영해를 침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한 척이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에 포착됐다. 나포 준비를 마친 어업지도선이 여느 때처럼 중국 어선에 접근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들이 몰려들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0~300t 이상의 중국 어선 6척은 어업지도선을 에워쌌다. 고작 7명 남짓인 단속 인원에 가스총만으로 쇠창살을 배에 매달고 칼, 해머, 낫 등을 들고 날뛰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목포해경도 이같은 내용을 무전으로 전해들었지만 거리상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결국, 어업지도선은 우리 해역에서 밀려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정부가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마련한 ‘불법조업 방지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말 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 사망(2011년 12월) 사건을 계기로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가 한 목소리로 내놓은 ‘약속 사항’ 조차 1년 넘게 시행되지 않는가 하면, 진행 속도도 더디기만 해 단속 대원들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한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정부가 나날이 흉포화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겠다며 내놓은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 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내놓은 종합대책은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 합동으로 내놓은 것으로, ▲함정 및 인력 확충 등 단속 역량 강화 ▲불법조업 단속 추이를 어업 협정시 조업쿼터와 연동하는 것을 비롯한 외교 대응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서해어업단의 경우 ▲단속인원 30명 추가 확보 ▲어업지도선 4척 확충(12~15년) 등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단속 인원 확충은 1년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30명이던 확충 계획은 지난해 14명으로 축소됐고 그나마 여태껏 확충되지 않은 상황이다.

어업지도선 증강 대책도 지지부진하다. 1000t급 이상 어업 지도선 4척을 2015년까지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 현재까지 확충된 것은 1척이 전부다. 이마저 종합대책 발표 전에 추진된 것으로, 정작 배만 늘려놓고 단속 인원은 보강하지 않아 실속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양 경찰의 검색용 고속 단정(10m급) 교체 계획도 날로 첨단화, 고속화하는 중국 어선의 진화 속도에 비하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목포 해경이 보유한 고속 단정 12척 중 3척만 지난해 바뀌었을 뿐이다.

아울러 정부가 외교 대응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한·중 어업쿼터 협상시 불법조업 적발 추이 등과 다음해 조업쿼터를 연동하겠다’는 방침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협상 때 양국간 조업쿼터가 확정(2013년 어선 수 1600척 조업량 6만t) 됐고, ‘2~3년간 현행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467척에 이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남대 의대졸업생 학위 취소 요구 일파만파

지역 의료계 “학생에 피해 전가” 반발

부실·횡령으로 수사와 감사를 받고 있는 남원 서남대의 의대 졸업생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위 취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은 물론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학위 취소 대상자 134명은 현재 대부분이 레지던트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일부는 개업까지 한 상황이다. 만일 학사 학위 취소가 최종 결정될 경우 ▲졸업후 취득하는 의사면허(의사국가고시) ▲인턴(1년)·레지던트(4년) 경력 ▲전문의 자격증 등이 모두 무효가 돼 대학을 다시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 20일 서남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상실습 교육과정 부당 운영을 문제삼아 이수시간 미달 학생 134명의 학위 취소를 대학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사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남대 의대의 부실한 교육은 대학과 이를 감독하지 않은 교과부에 원인이 있음에도 책임을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돌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졸업생들에게 교육 이수 미달시간을 보충 교육하도록 하는 등 졸업생 구제 대책을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2일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 요금소 이용자들이 현금으로 통행료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교통카드(터치식)로 제2순환도로 통행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제2순환도로 교통카드 이용 가능

시, 7월부터 도입

광주시는 논란을 빚어온 광주 제2순환도로의 교통카드 전자징수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백봉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22일 열린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통카드 등으로 제2순환도로 통행요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는 진선기(민주·북구 1)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교통카드(터치식)로 통행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국장은 “현재 운영중인 각 요금정산소에 교통카드 전자징수시스템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정산소를 통과할 때 교통카드 또는 현금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인 (주)한페이시스와 협의를 마쳤고, 최근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다음달 사업자와 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6월 교통카드 결제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한 교통카드를 우선 도입한 뒤 하이패스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입 유기농 차’ 주의보

중국산서 잔류농약 검출

일부 수입 유기농 차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차류 30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유기농 표시 중국산 2개 제품에서 비펜쓰린 등 농약 성분이 2~7종 발견됐다. 이는 유기농 기준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라고 소비자원이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운남유지푸얼차 백년세월’, ‘유기농 진주 자스민차’다.

유기농이 아닌 일반 수입 차류 24개 가운데 10개 제품에서는 농약이 나오지 않았고 14개 제품은 잔류 농약이 있었으나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뜸 07시 37분 해짐 17시 51분 달뜸 14시 35분 달짐 04시 18분

겨울비

오전에 비 내리다 그치겠다.

광 주	눈 또는 비	2/5℃
목 포	눈 또는 비	2/5℃
여 수	흐림	3/6℃
나 주	눈 또는 비	1/6℃
완 도	눈 또는 비	3/6℃
구 례	흐림	1/6℃
강 진	눈 또는 비	2/6℃
해 남	눈 또는 비	2/6℃
장 흥	눈 또는 비	2/6℃
순 천	흐림	1/6℃
영 광	눈 또는 비	1/5℃
진 도	눈 또는 비	3/5℃
전 주	눈 또는 비	1/4℃
군 산	눈 또는 비	1/4℃
남 원	눈 또는 비	0/4℃
흑산도	흐림	3/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밀물	썰물
목포	11:57 23:41	04:39 17:45
여수	07:11 19:11	00:24 13: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 씨						
최저/최고	-1/6	-4/0	-5/1	-5/3	-6/1	-6/4

광주시 시조(市鳥) 비둘기 어떡하나

질병유발 우려에 털 배설물 등 천덕꾸러기 전락

광주시가 시를 상징하는 조류인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밝힘에 따라 시조(市鳥)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986년 9월부터 비둘기를 시조로 정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최근 이 비둘기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배설물로 주변이 오염되고 털이 날려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 여기저기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비둘기의 배설물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스관을 부식시킬 만큼 독성이 강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비둘기의 배설물과 깃털에서는 뇌수막염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크립토코커스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광주시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오히려 시민의 기피대상이 된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비둘기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밝히고, 시민을 상대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비둘기가 집단 서식하는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10곳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도 설치했다.

한편. 광주시를 상징하는 꽃은 철쭉, 나무는 은행나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